

“대부업권 명칭 변경 추진... 불법 사금융과 선 긋는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 임기시작 소비자금융·생활금융 새명칭으로 이미지 개선 통해 고객 유입 노력 대부업 자격 획득 기준도 높여야



정성웅 제6대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뉴시스

지난달 말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부업권 활성화에 관심이 쏠린다. 정 회장은 협회 명칭 변경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용자 유입을 꾀할 방침이다.

최근 취임한 정 회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서비스국 팀장, 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등을 역임하는 등 서민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2022년 고금리 여파에 많은 대부업체가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올해 기준 금리 인하설이 나오는 만큼 정 회장의 리더십이 대부업권 회복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부업권 명칭 변경 추진을 강조했다. 대부금융을 바라보는 금융소비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

가 금융당국의 관리와 승인을 받은 정식 금융기관임을 강조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업권은 크게 ▲대부업 ▲중개업 ▲추심업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간 대부업체는 협회를 중심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른바 '사체'로 불리는 불법 사금융과 선을 긋기 위해서다. 국회 또한 관련 법안을 발

의했지만 여전히 정부위원회에 2년 9월째 계류중이다. 그간 대부금융협회는 공모전 등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명칭을 정했다. 유력한 대안으로는 '소비자금융', '생활금융' 등이 언급된다.

금융업계에서는 명칭 변경과 함께 대부업 자격 획득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금 중개 및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대부업 라이선스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뉜다. 개인의 경우 ▲대부업 교육 이수증 ▲보험 공제 가입 증명 서류 ▲수수료 10만원 등 9가지 서류만 가지고 있다면 창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등록 대부업체는 8771곳이다. 이중 개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6041곳(68.8%)이다. 법인 운영 대부업체는 2730곳으로 전체의 31.1%에 불과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7일 "개인의 경우 교육을 듣고 자금 1000만원과 사무실만 있으면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출 업무를 보는

이상 금융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명칭 변경에 이어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도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제도'를 고려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수 대부업체 제도란 조건을 갖춘 대부업자의 조달 영역을 확대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사실상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던 차입 허용 범위를 은행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단,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권과의 조율도 요구된다. 자금을 내줘야 하는 은행권이 해당 제도를 두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서다. 은행권에서는 대부업체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상표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연 20%)를 높이지 않는 이상 대부업권 활성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달 금리라도 낮춰야 한다"며 "정 회장이 명칭 변경을 시사했지만 분명 차입창구 확대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KB국민카드 사옥 전경.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외식소비·보험정보 데이터 결합 상품

KB국민카드가 영업 전략 수업을 위해 소비 데이터를 융합했다.

◆외식·보험 업권 활용도 ↑ KB국민카드는 데이터 얼라이언스 'DATAi'의 위원사들과 함께 이종 산업간 결합 데이터 상품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외식소비 결합 상품'은 가맹점의 세부 업종과 메뉴를 표준화했다. ▲인구 특성 ▲통신 ▲유통 ▲신용(CB) 등 데이터를 합쳤다. 공공 기관과 외식사업자가 추천상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보험정보 결합 상품'은 이용자의 ▲카드 이용 정보 ▲인보험 ▲실손 ▲사고 ▲청구 등의 보험 정보를 사용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보험 상품 추천, 맞춤형 마케팅 개발 등에 이용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결합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ESG 경영 실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KOFPI 임산물 판매 촉진 제철 식재료 판매

신한카드가 한국임업진흥원(KOFPI)과 함께 제철 식재료 판매를 진행한다.

◆생활용품 및 선물세트 할인 신한카드는 올댓쇼핑에서 '2024 봄 산나물&가정의 달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임산물 판매를 촉진한다. 이어 봄나물 가격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덜었다. 산나물을 활용한 장아찌, 건나물 등 다양한 제철 식재료도 마련했다.

봄철 산나물에 이어 ▲'K-포레스트푸드' ▲지정 산양삼 ▲밤 ▲오미자청 ▲선물세트 등의 가격도 인하했다.

생활용품은 한국산림인증(KFC)을 받은 친환경 CXP목재를 활용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KFCC는 산림을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인증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DGB금융 황병우號 첫 인사... 리스크 전문가 영입

박병수 전 NICE신용정보 대표 기업리스크관리총괄 부사장 임명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번째 인사로 박병수 전 NICE신용정보 대표(사진)를 그룹리스크관리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기업 리스크 평가 부문에서 전문적 역량을 지닌 박 부사장을 통해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이달 초 박병수 전 NICE평가정보 대표를 기업리스크관리총괄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박 부사장의 이번 인사는 지난 3월 28일 황병우 DGB금융 회

장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경영진 인사다.

박병수 부사장은 30년 이상 기업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종사하며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대안 정보 취급에도 정통한 '기업 리스크 전문가'로 꼽힌다.

박 부사장은 1966년 출생으로 대구계성고,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구은행 연구소를 거쳐 더존디지털에서 일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바젤부문 팀장, 삼일PwC 전무, 나이스신용정보 대표이사를 지냈다.

DGB금융의 이번 인사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이후 핵심 전략인 '맞춤형 기업 금융' 추진과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영입으로 풀이된다.

황 회장은 올해 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전략으로 지역별 거점 영업점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건전성 평가에서 매출, 신용, 자산 규모 등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경영

진 평판 등 대안 정보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재무적 정보와 대안 정보를 두루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임명했다는 것.

실제로 대구은행은 기업 금융 심사에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대안 정보를 포함하는 비재무적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GB금융은 앞서 지난해 12월 김철호 부사장(그룹리스크총괄)과 강정훈 부사장(이사회사무국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한 만큼, 당분간 3인 부사장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231@

반감기 2주 앞... 비트코인 최고가 재경신 하나

지난주 파월 매파발언에 대거 매도 반감기 후 장기전망 여전히 긍정적

이달 큰 폭으로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를 2주 남겨 놓고 다시 반등하고 있다.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해 올해 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할 것이라 의견이 지배적이다.

7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8000달러대에 거래되면서 지난 2일(6만4600달러) 대비 5.2% 상승했다.

지난주 비트코인 낙폭을 확대한 것은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일(현지시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공영 라디오 방송 '마켓 플레이스'에 출연해

"경제 성장이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고, 연준은 금리 관련 결정에 대해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세로 전환한 것이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상화폐와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투심)가 위축된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자금 유출 역시 하락세를 부추겼다.

지난 2일(현지시각)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크21 셰어즈 비트코인 ETF'에서 8800만달러(1188억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8190만달러(1105억

6500만원)가 유출됐다.

금리인하와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간 비트코인 가격 상승 호재로 평가를 받았지만, 오히려 낙폭을 더 키웠다는 평가다. 다만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달 예정된 반감기가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 분석이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2012년, 2016년, 2020년)에서는 반감기 후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 2012년에는 8450%, 2016년에는 290%, 2020년에는 560% 각각 상승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으로 4년 주기로 돌아온다.

비트코인은 현재 유통량이 2100만개 선에서 제한되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까지 190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채굴됐고, 모든 채굴이 끝나는 시점은 2140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굴 보상은 2009년 첫 출시 당시 비트코인 50개였지만, 2012년 11월(채굴 보상 1블록당 25비트코인), 2016년 7월(12.5비트코인), 2020년 5월(6.25비트코인) 세 차례 반감기를 거쳐 오면서 확연히 줄어들었다. 오는 21일 반감기를 거치고 나면 3125개까지 떨어지게 된다.

헤지펀드 매니저 마크 유스코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반감기 9개월 후 상승 포물선이 나타나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기가 되면 정점을 볼 수 있다"며 "올해 비트코인이 15만달러까지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병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물 ETF 상장 후 초반에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으나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에 따라 ETF 자금흐름이 크게 상승했다"며 "반감기 이후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